



악랄함 끝판왕 조재현 “가장 나쁜 놈 보여줄 것”

KBS ‘마스터-국수의 신’ 김길도 役 소름 끼치는 악의 화신 연기

조재현(51)이 악의 화신으로 돌아왔다. 어떤 옷도 소화해내는 그이지만 이번처럼 ‘닥치고 악역’은 낯설다. 왜 선택했을까부터 의문이다.

“고민했죠. 고민은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굳이 사이코패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어쩌면 김길도가 그런 부류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배태량답게 대답은 청산유수. 그러나 모르고 몰라도 조재현이 김길도를 맡기까지는 제작진의 삼고초려가 있었을 것이다.

KBS 2TV 수목극 ‘마스터 - 국수의 신’에서 악의 화신 김길도를 연기하고 있는 조재현을 최근 인터뷰했다.

“이렇게 나쁜 놈을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왕 하는 거 가장 나쁜 놈으로 그려보고요.(웃음)”

악역에게도 나름의 사연과 변명을 보여주는 게 드라마다. 조재현도 그런 사연 있는 악역을 종종 연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해 ‘편지’의 이태준부터 15년 전 영화 ‘나쁜남자’까지 그는 ‘사연 있는 나쁜 놈’을 깊이 있고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거로 유명하다.

그런데 ‘마스터 - 국수의 신’의 김길도에게는 딱히 변명거리가 없다. 그냥 나쁜 놈이다. 앞서 이 드라마의 제작발표회에서 조재현이 “보통 악역이 나름의 이유가 있고 동정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는데 김길도는 아니다. 심한 악역이다”고 설명했다. 4회까지 방송된 현재 김길도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이 들지 않

는다.

굳이 찾아내자면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자라났다는 ‘불우’한 성장과정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그의 수많은 살인과 폭력, 사기와 협박이 설명(?)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던 그는 평생 남의 인생을 훔쳐 내며 사기를 치다가 마지막으로 국수 만들기에 미쳐 살던 하정태라는 인물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 ‘안락’했다.

조재현은 “김길도에게 사연이 없어서 고민을 했지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 김길도와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라며 “흔히 드라마에서는 악의 화신을 사이코패스로 그리는데,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지 않나. 그런 인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도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어요. 지금은 강한 일면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악랄함도 버라이어티하게 그려려고 합니다. 김길도가 나쁜 놈이지만 극중에는 김길도를 이용하는 더 나쁜 놈도 있고, 김길도보다 더 저열한 놈도 나옵니다. 그런 역할 관계 속에서 김길도의 악랄함이 앞으로 다채롭게 그려질 겁니다. 어쩌면 김길도 덕분(?)에 통쾌함을 느낄 순간도 있을 거예요.(웃음)”

“마스터 - 국수의 신”은 김길도가 무명(전정명 분)의 아버지이자 궁중 국수에 심취해있던 하정태를 처음에는 절벽에서 죽인 뒤, 극적으로 살아난 하정태를 다시 불태워 죽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조재현이 연기하는 김길도는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없지만, 전정명 등 젊은 연기자들의 존재감이 약하

고 김길도의 아우라에 가려지면서 초반에 고전하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태양의 후예’의 후속작이지만 4회가 6%까지 떨어지는 등 현재 수목극 시청률 꼴찌다.

조재현은 “시청률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 운이 나쁘지 않고, 담고 있는 이야기가 강렬해서 시청자들이 흥미를 보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젊은 연기자들의 의욕이 크고 촬영현장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20부라는 긴 호흡으로 가니까 초반에 시청률이 안 좋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려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제가 너무 뒤면 안되잖아요.(웃음)”

조재현은 1~2회 자신의 아역을 소화한 B1A4의 바보를 칭찬했다. 그는 “착하게 생긴 친구가 정반대의 악역을 소화하니 더 느낌이 살았다. 아주 좋았다”면서 “가수지만 계속 연기를 할 만한 재목이더라. 바로에게 나중에 같이 한번 연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요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김길도는 엄연히 극중 국수의 장인이다. 평소 부엌에는 물을 마시러 가는 것 외에는 잘 가지 않는 조재현의 실제 요리 실력은 어떠할까.

“‘아빠를 부탁해’ 못 보셨어요? 거기서 제가 만든 갈비찜 요리 예술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 번만 더 만들어달라고 해요. 근데 절대 다시는 못 만들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요리가 나왔죠. 하하. 그래도 이번에 국수 반죽하는 연기할 때 너무 열심히 해서 팔이 힘들어 나날 났어요. 진짜 국수 장인 같지 않나요?(웃음)”

만화 단체 “‘피리부는 사나이’ 명백한 절도”

제목·전체 스토리 등 도용 혐의 사과 촉구

표절 의혹이 제기된 tvN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에 대해 만화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작가, 제작사, 방송사의 표절 사실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사)우리만화연대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등은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류유재 작가의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는 제목, 설정, 테마, 전개, 전체 스토리 등 모든 영역에서 도용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서 류 작가와 드라마 제작사인 콘텐츠, 이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 tvN의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리부는 사나이’의 표절 논란은 웹툰 작가인 고훈동 씨가 이 드라마에 대해 자신이 2년 전 시나리오 공모전에 출품한 ‘피리부는 남자’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온라인 등을 통해 공론화하면서 불거졌다.

고 작가는 2014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한 ‘2014년 창작스토리 기획 개발 공모’에 출품한 ‘피리부는 남자’와 드라마가 ▲국가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부패한 권력자를 처단하기 위해 테러리스트가 되고 ▲가스 살포라는 독특한 수단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고 씨는 특히 공모전 당시 류 작가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만화단체는 “고 작가가 즐기게 고수한 가스 살포 테마까지 가져다 쓴 것은 원안을 도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설정이라는 것이 만화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작품의 중요한 설정과 테마, 심지어 제목까지 가져다 쓴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절도행위”라고 주장했다.

만화단체는 이어 작가와 제작사, 방송사의 사과,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공모전 시행 기간에서도 응모자들이 안심하고 출품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드라마를 쓴 류 작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 작가는 지난달 25일 “고 작가님 작품의 핵심컨셉트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테러, 7개의 방독면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어야 하는 살인게임’이다”라며 “제 작품에는 테러나 인질극, 납치, 비행기 피랍 등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지하철은 등장하지 않는다. 중심 캐릭터 또한 공통분모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동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수 세기동안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작가가 재구성한 작품이며 ‘테러를 통한 사회적 복수’라는 키워드 역시 ‘더 테러 라이브’, ‘모범시민’ 등 많은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모티브”라고 밝혔다.

BBS불교방송, 전남 동부권 중계소 개국

오늘 개국 기념식·축하공연 개최

BBS불교방송이 난청지역이었던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지역)에 중계소를 개국한다. BBS광주불교방송이 10일 오후 6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전남 동부권 중계소 개국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부 개국 기념식과 2부 문화공연으로 구성된다.

축하공연에서는 캄보디아 왕립 무용단이 특별 초청돼 캄보디아 전통무용인 암사라 댄스와 전통무용 ‘팬 댄스’, ‘코코넛 걸질 댄스’ 등을 공연한다.

한편 BBS는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가청권(주파수 FM 105.7MHz)으로 하는 중계소 설립을 허가받았다. 광양시 성황동 구 봉화산(471m)에 송신 시설을 설치해 지난월부터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올해 진주와 광양 중계소 개국에 이어 7월에는 강원도 강릉 중계소를 추가로 개국할 예정이다.

TV 프로그램 10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골지락 30 아침연속극(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세기의 라이벌 미라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청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발발가족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골지락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숨터(재) 05 다큐 공감(재) 55 튜튼생활제2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킷! 키즈스쿨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아빠 어릴 적엔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파레이드 50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나머의 성)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발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결적다큐 (런던택시기사의 해외원정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신의 애호박찌개와 건새우 볶음)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50 극한직업 (통발 장어잡이)
05:30 건강현아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류 오늘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황구수목포)	11:40 한국기행(재)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순수의 대지, 베트남 2부 원시의 색을 찾아서)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피터라비	21:30 한국기행 (명당보고서, 심승지)
07:00 레이디 버그	12:10 시대공감 - 우리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21:50 EBS 다큐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2부 트러니나무가 있는 마을)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16:00 코코몽3	22:45 리얼극장-행복
07:45 뽀롱뽀롱 보로로	12:50 숨은 한국웃기	16:30 코코고 다코(재)	23:35 시대공감
08:00 땃땃땃 유치원1~3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6:45 땃땃땃 유치원1~3(재)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독립적 주체)
08:45 코코고 다코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보로로	
09:00 코코몽3	13:50 원더볼즈	17:45 로보카 폴리	
09:2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불효자 안만드느법)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0일(음 4월 壬辰)
子 48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60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72년생 이면의 실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84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9, 64	午 4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익이다. 54년생 희망 사상이 현실화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66년생 등한시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78년생 개털에 벼룩 까듯 하겠다. 행운의 숫자 : 91, 74
丑 49년생 일관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하에 놓인다. 61년생 별것 아니니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73년생 노력에 비해 후한 대가가 따르리라. 85년생 질도 중요하지만 대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43, 74	未 43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로다. 55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67년생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79년생 예상치 못한 범민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22, 01
寅 50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져야 대치가 가능하다. 62년생 거품만 무성할 뿐이고 실속이 약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74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86년생 가까운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5, 28	申 44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여 너르다. 56년생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68년생 단려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겠다. 80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0, 38
卯 51년생 상세한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63년생 정리 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75년생 좌우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87년생 간발의 차가 정리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요체가 되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40	酉 45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나 매사에 신중 하라. 57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69년생 차체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13, 60
辰 40년생 역풍이 지나면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52년생 객관적 자료를 참고할 일이다. 64년생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76년생 명백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88년생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4, 36	戌 46년생 자신 있게 진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으리라. 58년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니라. 70년생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지니 살펴보라. 82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58
巳 41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53년생 효율성을 제고하자. 65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77년생 주어진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묵묵히 진행해 나가면 향후의 발전을 기약한다. 89년생 냉철하게 뒤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70, 18	亥 47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라. 59년생 지출이 커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71년생 상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니라. 83년생 막힌 것은 망설이지 말고 풀라. 행운의 숫자 : 25, 08